

102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람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사막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8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 경배의 찬송 |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
| ♠ 공동기도 | 다함께 |

자비하신 하나님,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요동치는 이 좁은 가슴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연일 쏟아지는 장맛비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식같이 키우는 농작물의 피해를 걱정하는 농부들, 집과 일터의 침수를 염려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바라보며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인재로 인해 자연재해가 확대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
|------------------|--|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빌4:6-7 인도자 |
| ♠ 교 독 문 | 28. 시편63편 다함께 |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 대표기도 | I. 황경순 집사 II. 김재홍 목사 |
| 응 답 송 | 찬양대 |
| 찬 양 | 363(통479). 내가 깊은 곳에서 다함께 |
| 성경봉독 | I. 막4:35-41 배동준 학생 II. 출33:18-23 윤성종 집사 |
| 찬 양 | 찬양대 |
| 말 씬 | I. 기적을 믿는가? 손성현전도사 II. 주님의 등을 보다 김기석 목사 |

- 찬 양 539(통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 갈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앞장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사십시오.
- 다 함 께 : 아멘. 작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앞세워 자신만의 길을 가려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뒤 따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집회 |
|----------|----------------|
| 선교회 | 요한1서 / 장영숙 전도사 |
| | 기도 : 장혜숙 권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이성운 전도사 | 곽권희 권사 | 김제우 학생 |
| | 김기석 목사 | 장영숙 전도사 | 박시내 집사 |

| | | |
|----|------|-------------------------|
| 7월 | 영접위원 | 방문성 박병구 윤성종 김정애 김윤정 이증자 |
| | 헌금위원 | 조병무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로제 수사와 떼제 공동체의 탄생

사람들은 ‘떼제’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음악 형식이나 <사랑의 나눔>이나 <찬미하여라>같은 특정 노래를 떠올린다. 로제 수사에 대해 들었거나 떼제가 프랑스에 있는 장소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트와 관상이라는 수도원 전통과 연관 짓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 떼제 공동체의 모습을 어렵풋하게 비출 뿐이다.

떼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40년 8월 20일, 로제라는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프랑스 남부 부르그뉴 지방으로 와서 작은 외딴 마을을 발견했는데, 바로 그 마을이 떼제였다. 처음 떼제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마지막 날 저녁까지, 로제 수사의 삶은 살아있는 복음을 끈질기게 추구했다. 떼제 공동체는 70년이 채 안 되지만 그 역사는 매우 독특하다. 이 초교파적인 수도 공동체의 발달 과정에는, 한 사람이 복음의 살아있는 본보기로 살기 위해 얼마나 성실히 노력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로제 수사,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평범하지만 헌신적인 수사들이 보여준 결연한 의지와 뛰어난 적응력은 실로 놀라운 것들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내내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복음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주목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의 정수에 집중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수백만 젊은이의 삶에 메시지를 전했다.

떼제 공동체가 커지면서 화해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느님과의 화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 화해를 추구하는 떼제 수사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뛰어난 적응력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수사들은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라는 하느님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적응했다. 수사들은 몇 번이고 이런 질문에 직면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얼마나 성실히 돌보고 있는가?” 수사들은 되풀이해서 “우리는 삶 안팎으로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자문했다.

.....

로제는 클뤼니에 도착하여 매매 중인 땅이 있는지 조사했다. 지역 변호사가 떼제라는 자그마한 마을에 꽤 큰 집이 한 채 있다고 알려줬다. 1940

년 8월 20일 오후, 로제는 자전거를 타고 그 작은 마을로 갔다. 포장도로도 없고 집들은 비어 있어 황량한 마을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집을 내놓은 집주인 가족은 리옹에 살았기에 마을에 사는 할머니가 로제에게 집을 보여줬다. 집 주변의 땅 대부분은 이미 팔렸지만, 집과 인접 건물들은 아직 살 수가 있었다. 로제는 차 두 대 가격보다 높지 않으면 살 수도 있다고 말한 듯하다.

땅을 모두 살펴봤을 때는 이미 꽤 늦은 시각이어서 할머니는 로제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식사 중에 로제는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로제에게 마을에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이 집을 사서 여기 머물러요. …… 우리 모두 외롭다우.”

가난한 여인의 절박한 호소가 로제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로제는 그 집을 사기로 했다.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로제는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공동체가 최초의 공식 모임을 갖기 전인 1940년 12월, 로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미 그 집에서 살고 있었다.

떼제는 프랑스의 독일군 점령지역과 비시 정권이 통치하는 자유지역을 분리하는 경계선에서 고작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리옹의 비밀 조직은 전쟁 난민을 로제의 집으로 보냈다. 리옹에서 보낸 사람 외에도 수많은 전쟁 피해자들이 로제의 집 앞에 찾아왔다. 그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다. 몹시 가난했고 음식이 부족했지만, 집에 딸린 작은 농지에서 키운 채소와 소에서 짜낸 젖 등 무엇이든 찾아내 손님들을 먹였다.

처음부터 로제는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 때로는 작은 방에 만든 예배실에서, 때로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였다. 로제는 피난 온 유대인들에게 결코 기도에 동참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로제는 수도원의 공동생활에 대한 소책자에 이렇게 기록했다.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노동과 휴식에 활기를 불어넣으라. 무엇을 하든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팔복 정신, 즉 기쁨과 단순함과 자비로 충만해지라.”

병 속에 시간을 담을 수 있다면

정구성

작은 병 속에
시간을 담을 수만 있다면

예쁜 병 속에
한 시간만 담아서
아빠 가방 속에
살며시 넣어 드리고 싶다

아무리 바쁘신 아빠도
그걸 꺼내 보시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으시겠지

하루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 만들어
아빠 가방 속에 몰래
넣어 드리고 싶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홍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 | |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강인식 김정숙 권미숙 박애순 박창운 허정운 안정숙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김정애 조현권 박아영 이재문 김종락 박영신
 조병무 송양진 조문규 진정숙 이광용 형인순 맹은선 옥귀희 이우철
 곽새롬 김혜영 이성운 무명

월정헌금:

김남홍 선우영 김현영 정원석 윤성종 김윤정 이갑재 이봉배 전영자
 조순덕 하현철 최성애 박상규 박성희 조항미 박은정 이주현 무명

감사헌금:

안정숙 양재성 문희창 권미숙 정복순 한훈식 권채영 박병구 김정애
 김진경 송동준 김용진 박효선 박창운 허정운 박옥식 윤은식 윤선희
 문영혜 무명3

녹색꿈헌금:

이건식 신영신 양재성 백혜숙 우순덕 최경미 나오미선교회 무명

생일헌금:

한상의

| 속명 | 인도자 | 속장 | 모인곳 | 다음장소 |
|------|-----|-----|-----|------|
| 에루살렘 | 장혜숙 | 박성실 | 장혜숙 | 심 |
| 베들레헬 | 노순옥 | 정경례 | 배부례 | |
| 안디옥 | 임정자 | 최경미 | 이소순 | |
| 가나안 | 문영혜 | 이명희 | 박정숙 | |
| 갈릴리 | 안정숙 | 진정숙 | 조병주 | |
| 베다니 | 박홍재 | 곽권희 | 김순복 | |
| 시온 | 박효선 | 허정윤 | 임미심 | |
| 엠마오 | 최숙화 | 권미정 | 권미정 | |
| 에베소 | 이순정 | 김금순 | 강순배 | |
| 빌립보 | 이형숙 | 권미숙 | 김필순 |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정현주 | |
| 나사렛 | 정영선 | 백혜숙 | 김희우 | |
| 갈라디아 | 유경순 | 김수진 | 유경순 | |
| 고린도 | 이영란 | 이증자 | 야외 | |
| 다메섹 | 박혜경 | 최영혜 | 임창선 |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선교회장 모임** :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선교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3. **수양회 참가 신청** : 각 선교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 선교회장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속회방학** : 이번 주부터 속회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9월 3일에 개학합니다.
5. **신앙실천** : 새로운 찬양을 익혀 일상 속에서 반복하며 불러 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가버나움 속 (다음 주 : 나사렛 속)

* 설거지 봉사 : 남창모 전충길 김세진 (다음 주 : 김대근 김남홍 이준하)

* 새교우 : 한훈식 (5남선교회)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안내

1.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예배실 앞자리부터 앉습니다.
3. 기도 중에는 출입을 삼갑니다.
4. 휴대 전화는 예배 시작 전에 끕니다.
5. 음식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